

'권역별 청소 책임제' 시행

전주시, 7월부터 권역별로 1개 업체가 모든 쓰레기 수거체제로 전환

전주시 생활 쓰레기 수거 방식이 오는 7월부터는 권역별로 정해진 담당업체가 모든 성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권역별 청소 책임제'로 바뀐다.

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 수거 체계를 '권역별 청소 책임제'로 변경·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 업체별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정해진 1개 성상의 쓰레기만 책임지고 수거하는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시행되면 일정 권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모든 성상의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까지 1개 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시는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마지막 사전점검 및 대행업체와의 최종 간담회를 가진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청소 수거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청소 미비 상황과 쓰레기 다량 적치 및 수거 지연 사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인 7월 1일 전후로 시·구 합동으로 권역별 1:1 담당팀을 편성해 청소수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거 체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권역수거 안내 전단지 1만2,000매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BMS시스템과 전광판 등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와 MOU 기관·단체와도 연계해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는 전주시 청소 역사 최초로 변경·도입되는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운영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후, 오는 2024년 7월 시행될 차기 대행영역에서

이를 보완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권역별 청소책임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권역수거 추진상황에 대한 4차례의 대행업체 현장점검과 대행업체 대표 간담회 4회, 대행업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꾸준히 논의해왔다.

한편 시는 권역수거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반쓰레기·재활용품 등을 성상별로 올바르게 분리해서 배출하기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해 배출(수거일 전날 저녁 배출)하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적돼온 잔재쓰레기를 줄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로 약간의 쓰레기 수거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행 초기 다소 쓰레기 수거가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1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탄소중립 함께해요! 모두를 위한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오창환 전북대 교수와 문성주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

남궁은희 '다담' 산업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각각 '지구와 인간관계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예코 실천'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친환경 비누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실천해 우리 삶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했다.

이날 강연은 오창환 전북대 교수와 문성주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 남궁은희 '다담' 산업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각각 '지구와 인간관계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예코 실천'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친환경 비누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실천해 우리 삶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했다.

이날 강연은 오창환 전북대 교수와 문성주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 남궁은희 '다담' 산업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각각 '지구와 인간관계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예코 실천'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친환경 비누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실천해 우리 삶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탄소중립 함께해요! 모두를 위한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중·일 3국 문화공연 '한여름밤의 삼색동락'

전주시, 17일 한국 마당놀이·중국 변검·일본 전통춤 등 특색있는 공연 진행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전주에서 한·중·일 3국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7일 오후 7시, 한국도지주택공사 전북지사 옆 용호근린공원(완산구 흥산로 148)에서 '한여름밤의 삼색동락(三色東樂)'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중국, 일본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연중 추진하는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한·중·일 3국의 특색있는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국의 합죽마을의 '용을 쫓는 사냥꾼'이라는 마당놀이를 갈라쇼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판소리와 국악, 전통연희 등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용을 잡아 큰 부자가 되려는 사냥꾼들과 용의 속고 속이는 모험기를 다뤘다.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는 의선중국전통공연단의 변검(기변



끝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전북다문화가정연합회 일본전통문화공연단이 '이웃집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일본 동요 중 널리 알려진 '고추잠자리'를 합창할 계획이다. 또 일본 민요의 일종인 '온도(音頭)'의 멜로디에 맞춰 전통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전통놀이 문화축제와 현대미술 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오는 11월까지 청년문화 포럼, 음식문화 교류, 서예, 음악, 문화예술 페스티벌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아시아 3국의 특색있는 공연을 통해 한·중·일의 문화가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흥이 나고 기분 좋은 여름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위기가구 안정적 생활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전주시 덕진구, 상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해 10억3000만원 지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신바람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덕진구는 올 하반기에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 원, 4인 기준 월 405만 원), 재산 기준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금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1인 62만 원, 4인 162만 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해산·장제 지원 등 9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침수 등에 따른 주거 취약가구 가정과 노숙인 등을 비롯한 각종 고위험군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 내 자생 단체와 복지관, 병원, 학교, 주민 등에게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총 21억1800만원 중 현재까지 1262건, 10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긴급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노출 위험이 있는 주거 취약가구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덕진구청 복지지원팀(063-279-6970, 270-6781)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천변 편의시설 개선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가 15일 전주천, 삼천 일대를 찾아 현장 활동을 펼쳤다.

박선전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인근

전주천변 공중화장실과 하천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흥산교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시는 천변 이용객들을 위해 올해 2곳의 공중화장실을 개소했으며 하

반기까지 4곳의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하천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주천·삼천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친수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